

PwC, 27차 연례 글로벌 CEO 설문조사(아시아태평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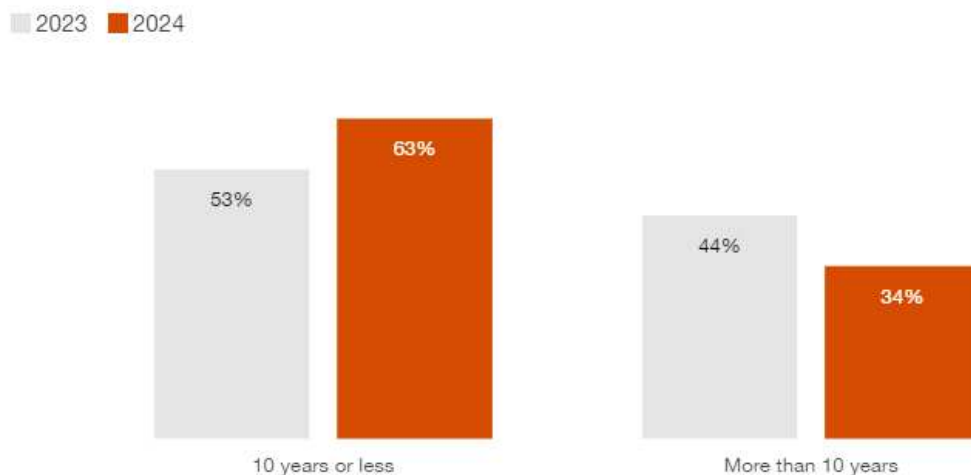
2024. 5. 31

한-인도네시아 인프라 협력센터

PwC가 글로벌 CEO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27차 연례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1,774명의 CEO 중 63%는 (회사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경영을 지속하는 경우) 10년 이상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1년 전 조사의 53%에 비해 10% 증가한 수치이며, 글로벌 CEO 평균인 45% 보다는 18%나 높은 수치입니다.

설문에 응답한 인도네시아의 CEO들은 75명이었으며, 이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56%만이 장기 생존 가능성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장기 생존가능성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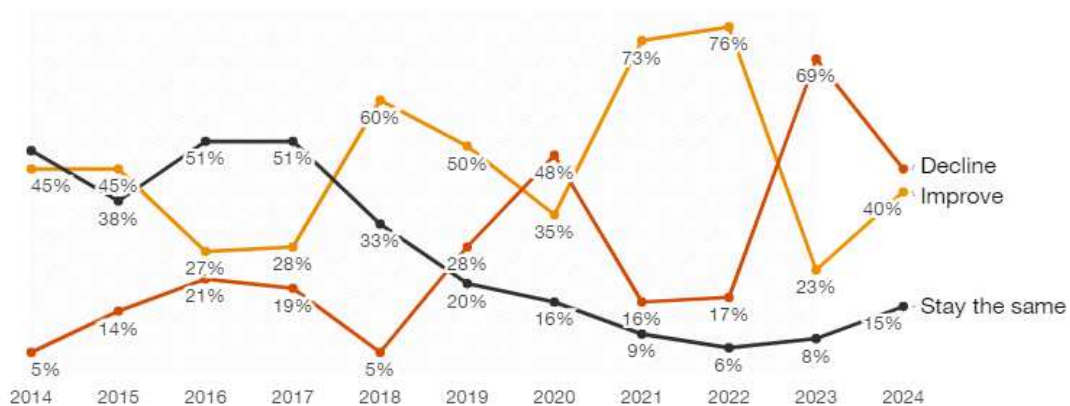
* 출처 : PwC's 27th Annual Global CEO Summary

이러한 위기의식으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CEO 중 97%(인도네시아는 93%)는 혁신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한 견해에 대한 질문에도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CEO는 40%인 반면,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CEO는 45%로 향후 경제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32%의 CEO만이 글로벌 경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기에 대한 시각이 다소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경기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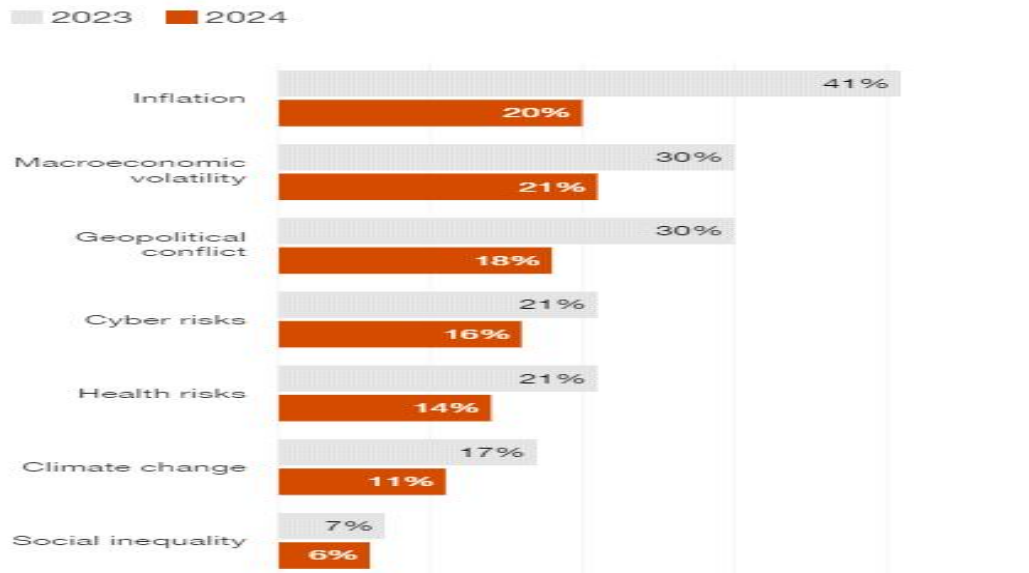
* 출처 : PwC's 27th Annual Global CEO Summary

흥미로운 점은 설문에 응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CEO들은 향후 12개월 동안 물가 상승, 거시경제적 변동성, 지정학적 갈등 등의 위험요소들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PwC는 이러한 상반되는 상황¹⁾이 공존하는 현상에 대해 CEO들이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비해 단기적인 위험을 해결하고 성공을 거두는데 더 집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1) 주) 위험요소에 대한 노출은 줄어드는데 경기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

[향후 12개월간 본인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출처 : PwC's 27th Annual Global CEO Summary

CEO들은 또한 기후 및 Generative AI(GenAI) 분야에서 위기와 기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은 내부와 외부에 모두 있습니다. 세 가지 외부 장벽은 규제 환경, 인력 기술 부족, 공급망 불안정성이며, 내부 관점에서는 CEO가 혁신의 기본인 재정적, 인적 자원에 대한 할당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CEO 중 2/3는 매년 자원 재분배가 20% 이하에 불과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CEO들은 여전히 중국(70%→60%)과 미국(57%→40%)을 회사의 성장 전망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국가로 간주하고 있지만 중요도는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기후 행동에 대한 대부분의 진전은 탈탄소화에서 이루어졌지만, CEO 5명 중 1명은 현재 기후 적응, '정당한 전환' 또는 자연 기반 솔루션과 관련된 다른 유형의 조치를 추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CEO 중 41%는 GenAI가 향후 3년 내에 회사, 인력 및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2개월 동안 아직 GenAI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26%는 GenAI로 인한 인원 감소를 예측했습니다.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우리 기업에게 프로젝트 기획과 타당성 조사 지원, 양질의 프로젝트 정보 제공, 금융조달 능력 제고 등 해외투자개발사업의 전단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